

중형 같은 준중형 SUV...스포티지, 첫 차로 강추

트렁크·실내 중형SUV에 버금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엄지 척 부드러운 주행 감성...연비도 굿 디지털키 등 첨단 편의사양 충실

기아의 5세대 신형 스포티지는 7월 출시돼 3분기에만 1만4036대가 판매되며, 준중형 SUV 시장을 넘어 중형 SUV까지 위협하는 베스트셀링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폭발적인 인기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신형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4WD 모델을 시승했다.

●**깜짝 놀랄 만큼 커진 실내 및 적재공간**
차박과 캠핑 열풍으로 적재 공간이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SUV를 선호하지만, 중형 SUV는 너무 크기가 커 운전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예비 오너들이 적지 않다. 준중형 SUV가 최근 중형 SUV의 인기를 뛰어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애 첫 차로 가격 부담도 덜하고, 운전이 상대적으로 편한 것도 사실이다.

정말 공간은 더 넉넉해졌을까. 신형 스포티지를 시승하기에 앞서 먼저 테일게이트를 열어 트렁크 공간을 살펴봤다. 신형 스포티지의 트렁크 용량은 637리터로 기존 모델보다 134리터나 더 커졌다. 실제로 보면 싼타페의 트렁크 공간과 별 차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크다.

트렁크 공간은 물론 운전석과 2열에서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스포티지의 전장은 4660mm이며, 실내 공간의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는 2755mm로 중형 SUV인 싼타페(전장 4758mm, 휠베이스 2765mm)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실제로 실내 공간에 그대로 반영돼 거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기아 5세대 신형 스포티지는 중형 SUV를 위협하는 수준의 넉넉한 실내 및 적재 공간을 갖춰 준중형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준중형 SUV 최초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도 차별화 포인트다. 사진제공 | 기아

●**'반칙 수준'의 인테리어와 주행 감성**
많은 경쟁 모델들 가운데서 소비자들이 신형 스포티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준중형 SUV 최초로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3인치 계기반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부드럽게 곡면으로 연결한 첨단 디스플레이로 실내를 최신 전기차 부럽지 않은 미래형 차로 보이게 만들어준다. 새롭게 디자인된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어우러져 전체적인 스포티지의 인테리어를 경쟁 모델과 차별화하는 핵심 편의사양이자 인테리어 요소다.

주행 감성과 연비도 기대 이상이다. 신형 스포티지는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 1.6 터보 하이브리드 등 3개의 신규 파워

배기량	1598cc
최고출력	180ps / 5,500rpm
최대토크	27.0kg·m / 1,500~4,500rpm
복합연비(17인치 타이어 기준)	12.5km/L
변속기	7단 DCT
공차중량	1525kg
가격	2422만~3311만원

트레인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시승 모델인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0kg·m의 동력성을 갖췄다. 폭발적인 가속력이 필요치 않은 모델인 만큼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 감성을 발휘하면서 연료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세팅했다. 공인 복합연비는 12.5km/L이지만, 고속도로 위주로 200km를 정속 주행한 결과 17km/L의 실연비를 기록

했다. 첨단 사양도 충실하다. 스마트 키 없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출입과 시동이 가능한 디지털 키, 별도 카드없이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손쉽게 결제 가능한 기아 페이, 실내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로 뒷좌석 승객을 감지한 뒤 운전자에게 클러스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후석승객알림, 시동을 끄고 일정 시간 후 불로워를 작동시켜 에어컨 내 남은 응축수를 말려주고 냄새발생을 억제하는 애프터블로우 시스템 등 매력적이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

생애 첫 차로 주저 없이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 성능, 연비, 첨단 사양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델이다. sereno@donga.com



MINI 컨트리맨 쿠퍼 S 새도우 에디션(왼쪽)과 MINI 클럽맨 쿠퍼 S 새도우 에디션. 사진제공 | MINI 코리아

MINI 새도우 에디션 한정 판매 클럽맨 쿠퍼S·컨트리맨 쿠퍼S 기반 2종 40대씩

MINI 코리아가 MINI 샵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한정 판매 모델인 'MINI 새도우 에디션'을 선보였다.

MINI 새도우 에디션은 안개가 자욱한 영국 런던 거리에서 영감을 얻은 모델로, MINI 클럽맨 쿠퍼 S 및 MINI 컨트리맨 쿠퍼 S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두 모델 모두 차체 외부에 깊은 밤을 연상시키는 미드나잇 블랙 컬러를 적용하고, 펠팅 실버 색상의 루프와 사이드 미러 커버를 조합해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19인치 JCW 서킷 스포크 경량 휠과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돼 MINI 특유의 고-카트 필링을 즐길 수 있다.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애플 카 플레이, 8.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편의사양도 기본으로 탑재된다.

가격은 MINI 클럽맨 쿠퍼 S 새도우 에디션이 5050만원, MINI 컨트리맨 쿠퍼 S 새도우 에디션이 5530만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가격)이며, 국내에 각 40대씩만 한정 판매된다. 원성열 기자

르노삼성, 스크린 골프대회 '명랑운동회' 개최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니시노라)가 2022년형 SM6 출시를 기념해 전국 프렌즈 스크린 매장서 스크린 골프대회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대회 참여 후 '행운 순위' 결과에 따라 2022년형 SM6(TCe 260) 1대, 골프 캐디백, 드라이버 커버 등 카카오프렌즈 골프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2022년형 SM6 구매 상담 이벤트도 11월 30일까지 함께 진행한다. 해당 기간 르노삼성자동차 SM6 구매 상담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 구매 상담을 진행하면 추첨을 통해 카카오프렌즈 골프의 다양한 상품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구매 상담 후 출고까지 완료하면 프렌즈 아카데미 1개월 이용권을 추첨해 증정한다.

현대모비스, 바퀴가 90도 회전하는 'e-코너 모듈' 최초 개발

크랩 주행·제로 턴 주행 가능 차량 공간 설계도 자유로워져

현대모비스가 미래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차세대 자동차바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의 조향·제동·현가·구동 시스템을 바퀴 하나에 집적시킨 신기술인 e-코너 모듈 선행개발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티어링 휠부터 바퀴까지 기계 축으로 연결되던 기존 차량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신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2018년 CES에서 e-코너 모듈의 콘셉트를 처음 선보였으며, 이를 실제 차량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재정의하고, 제어용 ECU를 개발해 시스템 기능평가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신뢰성 검증과 양산성 검토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양산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에 e-코너 모듈이 적용되면 부품들 사이의 기계적 연결이 불필요해, 차량 공간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휠베이스의 변경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도어

방향이 차량의 크기 설계도 훨씬 자유로워진다.

특히 기존 약 30도 정도의 회전만 가능하던 자동차 바퀴를 주차 등 필요한 경우 90도까지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를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크랩 주행',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제로 턴'도 가능케 한다. 도심 속 좁은 도로 환경에서 차량 운행에 민첩성을 증가시켜 도심 주행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2023년까지 4개의 e-코너 모듈을 통합 제어하여 실차 가능 구현이 가능한 '스케이트보드 모듈'을 개발할 계획이



현대모비스의 e-코너 모듈이 적용된 친환경 도심형 달리버러 모빌리티 '엠비전 투고(M.Vision 2GO)'. 사진제공 | 현대모비스

다. 또한 이를 2025년까지 자율주행 제어 기술과 접목해 최종적으로 PBV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문제

		4			2			
	6		5				7	
1	7			9			3	6
		9		2	7	3		4
		7				6		
	4		6	8	1		2	
7	1			5			6	2
	2				9		5	
		5				4		

■ 스토쿠정답

4	6	7	9	2	1	5	8	3
8	5	1	6	8	2	9	2	7
2	9	8	7	5	8	6	1	4
6	2	4	1	8	9	6	7	5
5	1	9	5	7	6	4	8	2
9	7	8	2	4	1	6	9	3
9	8	5	2	6	7	8	4	1
7	4	6	8	1	5	2	9	7
1	8	2	4	9	6	7	5	3
6	3	2	1	7	9	5	8	4
9	4	1	5	6	8	2	7	9
7	9	8	2	4	1	6	9	3
9	6	7	8	5	2	1	4	3
4	2	1	6	8	7	9	5	3
2	7	9	5	8	4	6	1	3
8	8	6	7	9	1	4	2	5
1	4	5	7	2	6	8	9	3

■ 낱말문제

1	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가	20	21	다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나	42	43	44

01.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어 대는 곳을 이르는 말. 02. 전투 상황을 가정해 전술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의 전투. 03.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여 만든 대. 04. 연극이나 소설 따위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끝을 내는

마지막 장면. 05.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함. 06. 일정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의 수. 07. 돈을 도무지 쓰지 않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08.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 09. 한 데다가 장작 따위를 모으고 질러 놓은 불. 10. 일에 몰두해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11. 낮에는 쉬고 밤에 활동하는 동물의 습성. 12. 목적인 바를 이룬 정도. 13.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낸 돈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나누어 먹음. 14.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 15. 갓 태어나 암컷과 수컷으로 가려 놓은 병아리. 16. 가을 이슬을 받은 물. 17.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18.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

19. 해발 고도 200~600m의 완만한 기복을 이루고 있는 지형. 20. 두 번째 번이라는 뜻. 21. 서너 사람이 때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라칸을 이어놓으면 드라마 제목이 됩니다.

장	님	도	가	상	전	망	대	단
기	대	강	별	추	로	주	천	우
리	도	삼	오	모	창	문	구	인
취		창			신		수	전
정		지	재	치	릉	부		전
행								
야	주	철	불	뜻	화	장	류	호